

교회 회장단의 계승

십이사도와의 모임, 1844년 3월

윌포드 우드립(1807~1898) 회장은 이렇게 회상했다.



“저는 [조셉 스미스가] 죽기 전에 우리에게 한 마지막 말씀을 기억합니다. . . . 그는 세 시간가량 서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방은 타 베릴 듯한 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호박(보석의 일종)같이 맑았으며 그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훈싸여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우리의 의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업의 충만함을 설명했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이 지상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주셨던 생명과 구원에 대한 모든 열쇠, 모든 권능, 모든 원리를 제 머리 위에 인봉하셨습니다. 이 여러 원리들과 신권과 권능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으로 이 지상에 세우신 이 위대한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속해 있습니다.’ 그는 십이사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제 머리 위에 인봉하신 모든 열쇠, 모든 권능, 모든 원리를 여러분의 머리 위에 인봉했습니다.’ . . .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한 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왕국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의 어깨 위에 놓였습니다. 여러분은 그 책임을 맡아 온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조셉 스미스[2007], 532쪽에서 인용)

시드니 리그돈의 주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였던 시드니 리그돈은 1844년 8월 3일에 펜실베이니아 주 피츠버그에서 나부에 도착했다. 8월 6일 화요일에 그는 교회 회원들이 교회의 수호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특별 모임을 열 것을 요청했다. 시드니 리그돈은 미합중국 동부에서 선교 사업을 하고 있던 모든 열두 사도들이 돌아오기 전에 모임을 열어, 교회 회원들이 그의 지위를 교회의 수호자로서 인준하게 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도 윌라드 리차즈 장로와 팔리 피 프랫 장로의 노력 덕분에 모임은 대부분의 사도들이 나부로 돌아온 뒤인 1844년 8월 8일 목요일로 옮겨졌다. 시드니 리그돈은 자신이 이전에 조셉 스미스를 위한 대변자로서 부름 받고 성임받았기 때문에(교리와 성약 100:9 참조), “교회가 적절한 방식으로 통제되고 있는지 감리하는 것”(History of the Church, 7:229)은 자신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제임스 스트랭의 주장

조셉 스미스가 사망한 후, 1844년 2월에 침례 받았던 제임스 스트랭은 자신을 계승자로 임명했다고 언명하는 조셉 스미스의 편지를 받았으며 주장했다. 그 편지는 위조된 것이었지만, 조셉 스미스의 서명이 포함된 것처럼 보였고, 스트랭이 그것을 보여주자 몇몇 회원들이 속아 넘어갔다. 또한 스트랭은 자신이 천사의 방문을 받았으며, 그 천사가 열쇠를 주었다고 말했다.

1844년 8월 7일

시드니 리그돈이 나부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곳에는 존 테일러, 윌라드 리차즈, 팔리 피 프랫, 조지 에이 스미스 장로가 도착해 있었다. 브리검 영을 포함한 나머지 대부분의 사도들은 1844년 8월 6일 저녁에 나부로 돌아왔다. 다음 날인 8월 7일에 사도들은 존 테일러의 자택에서 평의회를 열었다. 그날 오후 늦게, 십이사도들과 고등평의회, 대제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영 회장은 시드니 리그돈에게 성도들 앞에서 발언할 기회를 주었다. 시드니 리그돈은 대담하게 자신이 시현을 보았으며 어느 누구도 교회 회장으로서 조셉 스미스를 승계할 수 없다고 공표했다. 그런 후 그는 자신을 교회 회원들의 수호자로서 임명할 것을 제의했다. 시드니 리그돈이 연설을 끝낸 후, 브리검 영(1801~1877)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전했다.



“저는 누가 교회를 인도하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 . . 그러나 하나님이 이에 관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점만은 알아야 하겠습니다. 제게는 열쇠와 그 주제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얻을 방법이 있습니다. . . .

선지자 조셉은 사망하기 전에 그가 가지고 있던, 사도 직분에 속한 모든 열쇠와 권능을 우리에게 부여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의 집단도 이 세상과 앞으로 올 세상에서 조셉과 십이사도 사이에 끼어들 수 없습니다.

조셉은 십이사도에게 ‘내가 기초를 놓았으니 여러분이 왕국을 세우십시오. 왕국은 여러분의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History of the Church, 7:230)

1844년 8월 8일 오전 10시

1844년 8월 8일 오전 10시에 나부의 성도들은 자신이 교회의 수호자가 되어야 한다는 시드니 리그돈의 주장을 들으러 함께 모였다. 그는 그곳에 모인 수천 명의 성도에게 한 시간 반 동안 이야기하며 왜 자신이 교회의 수호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했다. 몇몇 사람들은 시드니 리그돈의 말씀이 따분했다고 묘사했다.

브리검 영 회장은 새로운 지도자를 임명하는 것보다는 선지자를 애도하기 위해 나부로 돌아오고 싶었다고 간략하게 말씀을 전했다. 그는 그날 오후 2시에 지도자와 회원들의 모임이 열릴 것이라고 공지했다. 나중에 몇몇 교회 회원들은 브리검 영이 말씀할 때 그 모습과 목소리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모습과 목소리로 변한 것을 보고 들었다고 증언했다.

에밀리 스미스 호이트는 이렇게 회상했다. “설명하는 방식, 얼굴 표정, 목소리가 내 영혼을 전율하게 했다. . . . 나는 조셉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나는 자주 깜짝 놀라 나도 모르게 일어나서 그 사람이 조셉인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만

했다. 그는 조셉이 아닌, 브리검 영이었다.”(Lynne Watkins Jorgensen, “The Mantle of the Prophet Joseph Passes to Brother Brigham: A Collective Spiritual Witness,” BYU Studies, vol. 36, no. 4 [1996–97], 142에서 인용)

월포드 우드럽은 이렇게 적었다. “제가 그를 제 눈으로 보지 않았더라면, 조셉 스미스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저를 설득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History of the Church, 7:236)

1844년 8월 8일 오후 2시

이 자리가 중요한 모임이 될 것을 알았기에, 오후 2시가 되자 수천 명의 성도들이 모여들었다. 브리검 영은 시드니 리그돈이 제안한 수호자 직분과 그가 이전 2년 동안 조셉 스미스와 소원했던 일에 대해 직설적으로 말했다.

“만약 여러분이 리그돈 회장의 인도를 받고 싶어 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건대, 온 세상에 있는 하나님 왕국의 열쇠는 십이사도 정원회에 있습니다.

십이사도들은 하나님의 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브리검의 무릎이 흔들렸던 적이 있습니까? 이 사람의 입술이 떨렸던 적이 있습니까? 여기 히버 [시 킴볼]과 나머지 십이사도들이 있습니다. 십이사도는 신권 열쇠, 즉 온 세계에 펴질 하나님의 왕국의 열쇠를 가진 독자적인 조직입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조셉 옆에 서 있으며, 그들이 바로 교회의 제일회장단입니다.”(History of the Church, 7:233)

많은 성도들은 그날 오후에 말씀을 전한 브리검 영에게서 조셉 스미스의 모습과 목소리를 보고 느꼈다고 말했다. 이 기적과 함께 수많은 성도들이 브리검 영과 십이사도 정원회가 교회를 이끌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았다는 성신의 증거를 느꼈다. 이 모임을 끝내고 나부의 성도들은 만장일치로 브리검 영을 지도자로 하여 십이사도 정원회가 교회를 이끄는 것을 지지하는 투표를 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교회의 모든 회원이 사도들을 따르겠다고 선택한 것은 아니었다. 일부 사람들은 시드니 리그돈과 제임스 스트랭과 같이 자신만의 교회를 설립한 다른 사람들을 따랐다.